



◇개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징하는 부석사 가람배치는 소백산 능선과도 조화의 극치를 이룬다.



◇안양루 밑에서 바라본 석동(국보17호)과 무량수전(국보18호).



◇의상스님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의 건축기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는 답사객들.

# “33계단 오르니 화엄세계가...”

**태** 백산과 소백산의 두 산맥이 마주하고 있는 봉황산 중턱에 자리잡은 부석사는 지리조건과 풍경만으로도 화엄 경산이었다. 부석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문무왕 16년(676)에 의상스님이 왕명을 받들어 창건했다. 여름에는 그늘에서, 겨울에는 양지 바른 곳에서 의상스님은 <화엄경>을 강의했다. 물병 한개와 발우 하나로 국도를 만행하던 의상스님이 부석사에서 내려다본 소백산맥의 풍경은 어떠했을까. 1천3백년전 의상스님의 숨결은 지금도 부석사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의상대사를 향한 선유봉자의 지순한 사랑이 야기 창건설화로 전해지고 있는 부석사. 사랑의 불심으로 승화시킨 선유봉자의 낮이 '뜬 돌(浮石)'로 변했다 해서 사찰명이 유래되었다는 부석사를 찾은 날은 장미기간임에도 비가 멈추고 화창했다.

6월29일 불교문화테마여행단 126명은 화엄의 경산, 민다리의 불법세계로 가볍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편집자 주>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6월 부석사·희방사**

한국목조건축의 아름다움

## 우아한 배흘림기둥·단아한 조사당 '매료' 일주문-천왕문-안양루 '조화미' 극치

에서 천왕문, 범종루를 지나 안양루와 무량수전까지는 걸어서 15분 남짓. 이 길은 여느 사찰과는 달리 수많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참으로 매력적이다. 부석사의 공간구조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점차 넓어지고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람배치는 부석사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불국의 세계로 상징화하기 위해 9층 민다리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9층 민다리는 <관무량수전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에 이르는 방법으로 하품하생(下品下生)에서 중품중생(中品中生)을 거쳐 상품상생(上品上生)에 이르기까지 9단계를 행상과 공력으로 지극히 수행하면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석사 가람배치는 바로 그 9층 민다리의 상징을 잘 나타낸다. 천왕문은 하품하생, 범종루는 중품중생, 안양루는 상품상생이고, 무량수전 앞에 이르르면 누구라도 입을 짓고 극락정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부석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높은 축대가 계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

으로 층단형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다른 건축물과 마주치지 않고 옆으로 비껴져 있습니다. 건축물들은 웅장한 산하를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고 산하의 풍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비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이를 불문하고 천천히 한계단씩 오를 때마다 눈을 감았다가 정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부석사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범종루 앞에서 안내자 이강근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부석사의 3단계 석축들은 서로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각도로 어긋나 있다. 안양루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앞뒤 건축선이 30도 정도로 쏠린다. 부석사 경내는 기하학적인 대칭이나 평행선을 그리는 공간은 없다. 앞산 능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조금씩 각도를 달리한 것이다. 때문에 무작정 오르지만 하면 부석사 건축의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범종루, 유물전시관을 둘러본 답사객들은 이교수의 안내에 따라 무량수전을 향해 한계단 한계단 엄숙하게 오르기 시작



◇부석사를 창건할 때 선유가 바위로 변해 시정집배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담긴 부석(浮石).

했다. 첫발을 내디딜 때는 무량수전의 모습이 아련히 보였지만 오를수록 그 자취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열 다섯계단을 올랐을 때는 아예 자취를 감추버렸다. 안양루만 머리위에 떠있는 것이다. 마치 번뇌 덩어리를 이고 있는 느낌이다. 답사객들은 머위에 다소 지쳤지만 호기심을 안고 또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석등이 시야를 가렸다. 마지막 33계단을 올랐을 때 무량수전이 드디어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배흘림기둥으로 조성된 6기둥, 간결하면서도 견실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외관, 몽골족의 침입으로 파란해 왔던 공민왕이 쓴 무량수전 권역앞에서 답사객들은 황홀함에 심취해 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당에서 답사객들은 그동안 지은 모든 업장소멸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참회 기도

**이강근** (경주대 교수·문화재학)

**전문가 안내**

무량수전은 배흘림기둥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지만 이 건물의 아름다움은 비단 기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물의 안팎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의 간결한 짜임새와 웅장한 구도, 구조 부재의 세부에까지 미친 정성스런 조각술, 동향하도록 모서진 부처님(고려시대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을 향해 합장·배례할 때 느껴지는 장엄한 공간감 등 어느 하나 빼어난 건축술의 소산이 아닌 것이 없다.

부석사의 아름다움은 무량수전 때문에 유명해진 일면이 있긴 하나, 실은 절의 입구에서부터 무량수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정면의 연속적인 연속이다. 언덕을 올라서 일주문을 지나 당간지주에 이르는 과정은 비록 신라 당시의 모습은 아니지만 앞에는 봉황산의 우뚝한 봉우리가 다가서고, 옆으로는 사과밭으로 이어지는 정겨운 수풀이 경사진 참배로를 따라 펼쳐져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부석사의 건축적 아름다움은 당간지주 앞, 천왕문


**가람배치 깨달음 이르는 길 상징**  
**심미적 공간설계 기법 탁월**



을 향해 난 구도의 길 위에 함장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길을 끌어당긴다. 천왕문의 문을 사이로 난 창은 우리가 가야 할 구도의 길이 낮으막한 축대와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미리 보여준다. 천왕문을 나서면 멀리 2단으로 된 대석축이 보이고 그 석축 위에 세워진 건물의 모습이 잠깐 나타났다가 우리가 걸음을 옮기면 곧 사라진다. 축대 위로 오르면서 위를 보면 다시 건물들이 나타나고 완전히 올라서면 멀리 부처님의 세계가 건설되어 있을 법한 축대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불전의 지붕만이 아스라히 시야에 들어온다.

그 앞 아래쪽엔 마루 밑을 통과하도록 설정된 두 채의 누각이 앞뒤로 늘어서 있고 누각으로 다가서면 멀리서나마 보이던 부처님세계는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법고와 목어가 걸려 있는 2층 누각 밑 어두운 곳을 반쯤 통과한 지점에서 앞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 하는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마루 밑으로 난 통로 위에 열린 공간적 창을 통해 광명한 부처님세계, 아미타여래의 무량수전 그리고 3층의 석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석사의 공간구상에서 보이는 이렇듯 탁월한 설계기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건축공간인 가람의 구조 속에서 이해시키기 위한 스님 건축가의 치밀하고도 심미적인 배려의 결과로 보인다. 자장율사(590~558)가 문수보살을 이끈 태백산(신라 당시에는 오대산이라고 불렀음) 한 언덕에서 잠깐 만나 뵈고도 그를 불러온 결과 끝내 문수대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삼국유사>의 일화를 상기한다면, 지극히 깊은 불교적 사유 속에서 배태된 부석사의 공간 구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사정이 이러하기에 오늘날 한국의 건축가들도 부석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전통 건축이라는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 '97 문화유산의 해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보급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 골동품형  
·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 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청주 (0415)63-3873
진주 (0591)747-0106	예산 (0458)33-5097	포항 (0562)252-7749	마산·창원 (0551)84-0735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